

- 하나님은 영이시니 예배하는 자가 성령과 진리로 예배할지니라
- 오직 여호와와 그 성전에 계시니 온 땅은 그 앞에서 잠잠할지니라

제목 : **예수를 위하여 죽음에 넘겨지자** 성경: **고린도후서 4장 10-18절**

Tag: **부활,바울,예수,십자가,생명,죽음,신약성경,고린도후서**

10 우리가 항상 예수의 죽음을 몸에 짊어짐은 예수의 생명이 또한 우리 몸에 나타나게 하려 함이라

11 우리 살아 있는 자가 항상 예수를 위하여 죽음에 넘겨짐은 예수의 생명이 또한 우리 죽을 육체에 나타나게 하려 함이라

12 그런즉 사망은 우리 안에서 역사하고 생명은 너희 안에서 역사하느니라

13 기록된 바 내가 믿었으므로 말하였다 한 것 같이 우리가 같은 믿음의 마음을 가졌으니 우리도 믿었으므로 또한 말하노라

14 주 예수를 다시 살리신 이가 예수와 함께 우리도 다시 살리사 너희와 함께 그 앞에 서게 하실 줄을 아노라

15 이는 모든 것이 너희를 위함이니 많은 사람의 감사로 말미암아 은혜가 더하여 넘쳐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게 하려 함이라

16 그러므로 우리가 낙심하지 아니하노니 우리의 겉사람은 낡아지나 우리의 속사람은 날로 새로워지도다

17 우리가 잠시 받는 환난의 경한 것이 지극히 크고 영원한 영광의 중한 것을 우리에게 이루게 함이니

18 우리가 주목하는 것은 보이는 것이 아니요 보이지 않는 것이니 보이는 것은 잠깐이요 보이지 않는 것은 영원함이라 (고후4:10-18)

오늘 본문 10절에 보면

10 ...우리가 항상 예수의 죽음을 몸에 짊어진다...

고 기록되어 있다. 다분히 시적인 표현이다. 예수님께서서 죽임을 당하기 위해서 십자가를 짊어지셨던 것처럼, 우리도 항상 십자가를 짊

어진다는 고백이다.

죽음은 인류가 풀 수 없는 문제. 예수님 이전에도, 예수님 이후에도 아무도 상상하거나 연구하거나 실험해서 알아내거나 발명해 내거나 발견해 내지 못한 죽음에 대한 해답이 예수님께 있다. 왜냐하면 예수님은 생명 그 자체이시며, 생명의 주인이시기 때문이다. 이것이 죽음을 마음껏 컨트롤하실 수 있는 예수님의 능력이다. 능력있는 자는 문제를 바라보는 시각도 다르고, 문제를 풀어내는 방법도 다르다.

예수님께서 십자가를 지신 이유는 간단하다. 십자가의 죽음을 이겨낼 능력이 있기 때문이다. 수많은 학자들이 죽음을 이겨내려고 온갖 연구를 하지만, 그들은 결코 이 숙제를 풀지 못한다. 죽음을 이겨내는 유일한 자는 생명의 주인이신 예수님 밖에 없기 때문이다. 생명의 주인이 십자가를 짊어지셨다.

그리고 예수의 생명에 참여한 우리도 죽음을 이길 수 있다.

우리가 항상 예수의 죽음을 몸에 짊어진다

는 표현은 바로 이런 뜻이다. 또 11절에는, 비슷하지만 약간 뉘앙스가 다른 표현을 사용하고 있다.

11 ...항상 예수를 위하여 죽음에 넘겨진다...

고 표현하고 있다. 이것은 내가 예수님을 위해서 억울하게 고난을 당하게 되었다는 것을 의미한다. 예수님 때문에 누군가에게 희생을 당하게 되는 상황을 상상할 수 있다. 기독교인이라는 이유만으로, 복음을 전하기 위한 목적으로 내가 억울한 일을 당하게 되는 경우를 말한다.

10절에 보면 정확하게는 우리 몸이 그 짐을 진다고 되어있다. 단순히 인정하거나, 생각만 한다거나, 안타깝게 여긴다는 의미가 아니라, 항상 우리의 삶이 예수님이 십자가의 의미를 체득하고, 예수님이 보여주신 모범을 따라 십자가를 지는 생활을 한다는 뜻이다.

그런데 간혹 어떤 분들은 이 십자가의 의미를 잘못 이해하고 계시는 경우가 있다. 혹 속 썩이는 자녀가 있다든지, 술꾼 남편이 있다든지 하면 이걸 십자가로 여기며 살아가고 있노라고 생각하신다.

아무튼 고난의 삶이겠고, 희생하는 삶이긴 한데, 그래서 정말 안타까운 일이고 가슴 아픈 일이긴 하다. 그런데 과연 그 삶이 예수님을 위한 삶인가, 바람직한 삶인가를 따져볼 필요는 있다. 정확한 십자가의 의미를 자신의 삶에 적용하려면 제대로된 영적 공식이 필요하다.

예수님의 십자가와 부활의 영적 공식은 무엇인가? 그것은 이렇다.

1. 십자가가 없었으면 부활도 없다는 것.
2. 부활이 없는 십자가는 아무런 의미가 없다는 것.

특히 몸에 짊어진다는 표현.

10 우리가 항상 예수의 죽음을 몸에 짊어(지는 이유는) 예수의 생명이 또한 우리 몸에 나타나게 하려 함이라

십자가를 몸에 짊어진다(감당한다. 희생한다. 수고한다. 땀가를 지불한다.)

몸 = real live. vitality.

예수의 생명이 우리 몸에 나타나게 하려는 의도에서다.

그렇다면 특별히 예수의 생명은 다른 생명과 어떤 차이가 있는가?

1. 영생과 연결된 생명현상; 죽음을 초월하거나 질병을 이기는 생명력.
2. 하나님의 나라를 향한 개혁 현상 = 예수의 생명력이 넘치는 현상. 사람에게 긍정적이고 생동감이 넘치게 하는 것. 긍정적인 환경의 변화. 번성. 형통. 문제의 돌파. 개선. 더 좋아지는 것. 가정->나라
3. 핵심은 사람의 변화. =새 사람이 되게 하는 것. 자신뿐만 아니라 주변에 있는 사람의 생각이나, 태도나, 형편이 나아지는 것. 내가 복의 근원이 되는 것.

고로, 진정한 십자가란 예수의 생명이 우리의 삶에서 나타나도록 하

려는 의도적인 삶이라고 할 수 있다. (십자가란 팔자가 아니다. 그 팔자를 뜯어 고치려고 하는 노력을 말한다.)

그런데 왜 하필 그것이 나의 십자가냐? 그것은 문제의 핵심을 내 것으로 되돌리는 영성이 필요하기 때문이다. 예수님은 자기의 죄 문제로 십자가를 지시지 않으셨다. 예수님은 누군가를 대신해서 십자가를 지셨다. 이것은 내 문제가 아니라고 하면 그것은 십자가가 아니다. 물론 모든 문제는 내 문제가 아니다. 그러나 그 문제에 대해서 내가 할 수 있는 일을 끄집어내는 능력이 곧 영성이다. 그것이 아버지의 마음이다. 그것이 예수님의 마음이고, 성령의 감동이다. 각자의 재능과 지식과 자원으로 그 문제를 바라보고 그 문제는 내가 어떻게 도울 수 있겠다는 감동이 곧 영성이다. 그래서 그 문제가 내 문제이다. 그래서 나에게 책임이 있고, 내가 대신 감당해야 하고, 내가 희생해야 한다. 물론 합리적이고 도덕적이고 상식적이고 심지어 성서적인 핑계들은 많다. 얼마든지 내가 감당하지 않아도 아무도 비난하지도 않는다. 그런데도 예수의 십자가가 내 가슴에 걸린다. 나의 죄를 대신 지신 예수님의 십자가. 나의 죄를 덮어주신 예수님의 홍포, 나를 죄와 사망의 사슬에서 풀어주신 못박힌 예수님의 손이 내 가슴에 밝히는 자가 그리스도인이다.

내가 예수님에게 이렇게 생명을 받았는데, 내가 그 사망의 구렁텅이에서 건짐을 받았는데, 내가 그 저주받은 삶 속에서 해방되었는데, 저 사람의 문제가 내 눈에 밝힌다.

그렇다면 그것이 나의 십자가가 된다. 이것은 상식도 도덕도 아니다. 그냥 예수님의 영성이다. 이것이 성령의 충만함이다.

성령님은 내가 감당할 수 없는 무엇을 감당하라고 등 떠미시는게 아니다. 나라면 할 수 있는 것에 감동을 주신다.

할 수 있는 것이 감사다. 이보다 더 큰 감사는 없다. 내가 주의 나라를 위해서 희생할 수 있다는 것이 감사다. 이것은 그 어떤 감사 보

다 진정한 감사가 된다. 내가 갚을 수 없는데, 이렇게 대신 희생할 수 있는것이 얼마나 감사한가?

15 이는 모든 것이 너희를 위함이니 많은 사람의 감사로 말미암아 은혜가 더하여 넘쳐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게 하려 함이라

16 그러므로 우리가 낙심하지 아니하노니 우리의 겉사람은 날이 지나 우리의 속사람은 날로 새로워지도다

17 우리가 잠시 받는 환난의 경한 것이 지극히 크고 영원한 영광의 중한 것을 우리에게 이루게 함이니

18 우리가 주목하는 것은 보이는 것이 아니요 보이지 않는 것이니 보이는 것은 잠깐이요 보이지 않는 것은 영원함이라

아멘.

<찬양예배>

제목 : 소선지서 성경공부 성경: 호세아 11장

Tag: